

자작나무 숲길

남 너가 성장하여 결혼식을 올릴 때 화촉(華燭)을 밝힌다고 하며, 흔히 祝 華婚이라는 축하의 글을 적는다.

화촉을 밝힌다함은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고 행복을 부른다는 뜻으로서, 서구의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다. 옛날에는 전기는커녕 초도 없었으므로 불이 잘 붙는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여 조명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.

화(樺)자는 자작나무를 가리키며 이를 華자로 쓰기도 한다.

자작나무는 樹皮로 유명하다. 유분이 많은 수피의 겉면은 흰 색의 밀랍가루 같은 것으로 덮여 있고 안쪽은 갈색이며 종이처럼 얇게 벗겨지는데, 불에 잘 타면서도 습기에 강하여 옛부터 인간 생활에 다양하게 쓰여왔다.

“보티나무에 살고 보티나무에 죽는다”라는 말이 있듯이, 자작나무 산촌의 사람들은 보티나무라고도 별명되는 이 나무의 껍질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태어나, 이 나무로 불을 지피 밥을 해먹고 불을 밝히며 살다가, 죽어서는 그 시신이 자작나무 껍질에 싸여 저승으로 간다.

生老病死의 이치대로,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을 보다 안락하게 하기위하여 최근 「호스피스」라는 것이 생겨났다. 호스피스에서는 죽음에 대한 육체적,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과 평화로운 자연 풍광을 편안한 죽음의 반례로 삼게하기도 한다.

30대의 한 여자 암환자가 호스피스에 들어온 후 그녀는 매일 석양 무렵에 호스피스 근처의 숲길을 걸었다. 어느날 산책을 하던 중 남편의 품에 안겨 숨졌는데 “오늘의 자작나무 숲길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끝이 없지요?”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한다.

노동절로 상징되는 메이데이 (5월 1일)는 기실은 노동자와는 아랑곳 없는 날이다.

옛날 영국에서는 새봄 5월이 되면 마을마다 메이폴 (五月柱, May Pole)이라고 부르는 자작나무 기둥을 높이 세우고, 그 기둥에 매놓은 줄을 붙들고 돌며 젊은 남녀들이 짝지어 노는 男女和습의 의식이 있었다.

이 오월주에 서린 새벽이슬로 얼굴을 씻으면 주근깨도 없어지고 살색이 자작나무처럼 희어진 다하여 그 이슬을 상품화 했다고도 한다.

인간이 필요로하는 산소의 삼분의 일을 공급한다는 남반구 아마존 유역의 원시림이 남벌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반구의 키 큰 자작나무는 더욱 크게 자라고 있다.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되면 감빛 노을 곱게 물든 북녘의 자작나무 숲길을 映畵처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. (FLK)

〈金 東 一 / 위험진단부 차장〉